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나태주 시인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서두르고 조급해지는 사람들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속도 제일주의, 조급증이다. 도무지 진득하지 못하다. 무엇이든지 빠르게 똑딱 해치워야 직성이 풀린다. 참 지를 못한다. 기다리지 못한다. 특히 남의 일에 관한 한 더욱 그렇다. 그리고는 쉽게 결론을 내리고 돌아서 버린다. 우리가 예전에도 그랬을까? 내가 살기 이전 세상은 모르겠거니와 내가 어려서 보아 온 세상은 조금은 여유가 있고 그속한 정취가 있었던 세상이었다. 공평한 가운데서도 타인에게 좀 더 너그러웠으며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도 오늘날 우리들처

빨라도 너무 빠르다

럼 과격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이렇게 조급한 사람들이 된 것이다. 우선 자동차가 달리는 것만 봐도 그렇다. 지난번 서울서 저녁 행사를 마치고 후배 시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편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귀가한 적이 있다. 마침 밤이었고 그 운전자가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사람이라서, 한껏 속도를 낮추어 한참을 달렸다. 많은 차들이 비켜서 달려 갔을 것이다. 그런데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에 차를 세웠을 때 경찰 한 사람이 다가와 후배 시인을 불러세우는 거였다. “지나가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신고해서 왔습니다. 혹시 약주를 잡으셨습니까?” 그러더니 음주측정기를 들이댔다. 결과가 술을 먹지 않은 것으로 나오니 다시 물었다. “혹시 몸이 아프신 건 아닙니까?” 후배 시인이 그렇지 않다고 하니 경찰은 몇 마디 조언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고속도로에서는 어느 만큼은 속도를 내어 달려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자동차 운전자들이 신고를 합니다.” 나는 옆에서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착

잡했다. 내가 보기에 정상적인 속도로 달리는 것 같던데 그것이 신고의 대상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이고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으로 통하는 실례라 하겠다. 우리들 사는 세상이 모두 이렇다.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 바로 취급을 당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자동차는 웬만큼 달려서는 달리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갑갑하다. 나나 할 것 없이 그건 마찬가지다. 날마다 사용하는 컴퓨터도 그렇다. 컴퓨터가 얼마나 빠르고 좋은 기계인가. 그런데도 컴퓨터가 느리다고 불평한다. 도대체 얼마나 빨라야 빠른 것이 될 것인가. 이는 속도 불감증 수준이다. 일 처리 하나하나가 그렇고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대응 방식이 모두 그렇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자신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빨리만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속도를 아주 내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우리가 빠르다는 것을 알고나 빨리 가자는 말을 하고 싶다.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

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 공자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지금 충분히 빠르다는 걸 알게 되면 저절로 속도가 조절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좀 살펴 봐야겠다. 그런 다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다음에 어떤 선택이 나오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무조건 서두르고 빨리만 가자고 재촉할 일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잘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부족감을 느끼고 불만을 말한다. 심한 경우는 화가 나 있기도 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우리들의 속도감에 익숙지 않나 싶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이것은 또 괴테의 충고다. 방향을 잘못 정하고 속도만 낸다면 망하는 길이 빠를 뿐이다. 속도를 좀 줄이자. 쉽게 줄어들진 않겠지만, 지금 내가 빠르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조절을 해 보자. 그러다 보면 보이지 않던 풍경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빨라도 너무 빠르다. 그러다 보니 어찌만큼을 잃는 것이다.

종교칼럼

‘파랑새’와 행복한 생활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벨기에 작가 마테를링크의 동화극인 ‘파랑새’는 가난한 나무꾼의 아이들인 치르치르와 미치르 남매의 이야기다. 크리스마스 전야에 꿈 꿀을 극으로 엮은 이 작품은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치르치르와 미치르 남매는 마법사 할머니로부터 병든 딸을 위해 파랑새를 찾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개·고양이·뱀·물·뱀·설렁 등의 남프(精)를 데리고 꿈의 세계로 들어간다. ‘추억의 나라’에서는 죽은 사람과 즐거움을 나누고, ‘밤의 궁전’에서는 재화의 실상을 알고 ‘숲’에서는 공포를 알게 된다. ‘행복의 궁전’에서는 물질적 행복의 허무함을 보게 되고 참다운 행복은 ‘건강과 정의’, ‘어머니의 사랑’ 등임을 깨닫는다. 이후 파랑새는 마음속에 살고 있음을 계시받고는 ‘미레

의 나라’에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만나고 마침내 꿈에서 깨어난다. 그리고 나서 보니 처마 끝에 자신들이 기르고 있는 비둘기가 파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결국 행복은 가까이 있는 메시지를 남기고 가는 끝난다. 서양에는 ‘하루쯤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쯤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쯤 행복하려면 새 집을 짓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진실하라’는 속담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돈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권리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얼굴과 몸을 가꾸며 ‘아름다움’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건강과 마음의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행복을 찾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은 행복한 삶이라고 보다 좀 더 나은 무엇인가를 계속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욕망과 욕심만 키워 놓고 그곳에 합류하지 못한 사람들과 편승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간극을 벌어지게 할 뿐이다. 우리 사회가 혼란과 혼돈 속에 신계급주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경제, 불행은 있

기 마련이다. 원불교 대산종사님께서는 “최대의 행복은 최대의 불행을 넘어서야 오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부처님이 인욕선인(忍辱仙人)이었을 때 가리왕(迦利王)에게 팔다리가 찢기는 고통을 당하며 넘기신 그런 궁극이 없었다면 어찌 부처가 될 수 있었겠는가? 장차 우리도 그런 경계가 수없이 있으리니 단단히 각오하고 넘기지 않으면, 진리가 자격이 없다 하여 있는 것마저 남김없이 빼앗고 마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바다는 절대 비에 젖지 않는다. 또한 넘어지는 사람은 태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부리에 넘어지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한다면 아니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계는 행복한 세계가 되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있을까? 파랑새에 나오는 얘기처럼 모든 것이 동화에 불과한 얘기일까? 아니다. 파랑새는 바로 자기 마음의 힘인 것이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고 또한 나의 힘으로 해나가고 있다면 분명 당신은 돈이 없고, 권리가 없고, 넉넉한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만 자신의 힘으로만 자신 혼자 살아간다면 행복은 필지언정 행복한 생활

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행복한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사람도 없고 금수(禽獸)도 없고 초목(草木)도 없는 곳에서 혼자라도 살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누구나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만일 주위 인연의 도움이 없이,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다면 누군가의 조력은 큰 은혜와 다름이 없다. 이 세상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네 가지 생활 강령이 있고, 사람들은 그 강령 하에서 직업적인 활동을 하며, 각각의 소득으로 전만 물질을 서로 교환하며 살아가게 돼 있다. 오직 ‘자리아타(自利利他)’로 서로 도움이 되고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고 있다. 나 혼자서 사는 세상이 아니기에 나의 힘으로 남들까지 살려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이 많을 때 행복과 더불어 행복한 생활이 지속된다. 손이 두개인 이유를 아는가? 하나로는 나를 위해서 내 힘으로 살고, 다른 하나는 남에게 베풀면서 살라는 뜻이다.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는 나와 더불어 이웃과 함께 맑고 밝고 훈훈한 한해가 되며 나아가 복해(福해·복덕과 지혜)가 충만한 날들이 되기를 마음으로 빈다.

社說

불신 속 민간공원 사업 강행 뒤탈 없을까

말 많고 탈 많은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가 일단락됐다. 광주지검은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자 변경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공무원 3명과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 등 4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9개월 간 벌어진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검찰 수사결과 행정부시장 등 광주시 고위 공직자들은 특정감사에 착수한 후 부당한 지시 등 직권을 남용하는 방식으로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누가 무슨 의도로 사업자 변경을 지시했는지와 변경 과정에서의 대가성 여부 등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로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이 사실상 확인되면서 행정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게 됐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비리 연루 업체의 사업권 박탈은 고려하지 않는 등 사업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

이다. 중앙공원 2지구 사업자인 호반건설과는 이미 사업 협약을 체결했고 시행자도 지정했다. 중앙공원 2지구 사업자인 (주)한양과도 다음 주중으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광주시의 재정 여건상 오는 7월 해제되는 민간 소유 공원 부지를 사들일 수도 없고 그대로 둘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데라 지금 와서 특례사업을 중단시키는 힘이 없다. 하지만 탈락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사업자 변경이 이뤄지는 등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광주시는 지금부터라도 탈락업체의 소송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물론 소송 후 재판에서 질 경우까지 대비해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만반의 대응책 마련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후폭풍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만이 시민들의 불신과 의혹을 씻고 추락한 행정 신뢰도를 회복하는 길일 것이다.

고3 유권자 주권 행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참여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올해부터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고3 유권자 시대가 시작된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광주·전남 고3 학생 가운데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1만 1000여 명(광주 5000여 명·전남 6000여 명)이 투표권을 갖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법적으로 선거 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 활동을 보장받는다. 정치권에서는 ‘18세 표심’이 무시 못할 변수가 되자 이들을 겨냥한 정책을 내놓는 등 긍정적 영향도 기대된다.

하지만 광주·전남 교육 현장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다. 일부 학교는 학칙으로 재학생의 정당·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의 가입과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데다, 선거 교육 가이드라인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오는 2월 학생의 정치 활동 참여와 관련해 학교 규칙 제·개정을 안내하고 선거교육 TF팀 구성·운영을 통해 선거 교육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학교의 정치화로 공부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기우일 것이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4·19혁명이나 5·18 민주화운동 등에서 중·고교생 등 10대 청소년들은 어른보다 더 성숙한 정치의식을 실천했다. 기성세대는 늘 침묵하고 혀를 차지만 성숙한 청소년들이 훨씬 더 많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과 선거 당국은 이들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정치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거부감을 없애고 이성적 판단을 도와주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무이다. 학교와 교육 당국은 주저하지 말고 학생들이 당당한 유권자로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현재 세계 최고의 축구 클럽이라면 잉글랜드의 리버풀FC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했고 클럽월드컵까지 제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도 19승 1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리버풀은 축구 역사상 최악의 비극 중 하나인 ‘헤이젤 참사’의 아픔을 간직한 팀이기도 하다. 헤이젤 참사는 1985년 홀리건들의 난동으로 39명이 사망하고 454명이 부상당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번 아픔과 영광을 간직하고 있는 리버풀을 바라보는 한국 팬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리버풀은 지난 연말 클럽월드컵에서 우승한 뒤 클럽 감독의 사진 배경에 일본의 전범기인 욱일기 이미지를 사용했다. 최근 갈츠부르크에서 일본 선수 미나미노를 영입하면서도 또다시 홈페이지에 욱일기 문양을 실었다. 한국 팬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구단은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하지만 이 사과문은 한국IP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꼼수였다. 이에 비해 비슷한 상황인데도 독일 바이에른 뮌헨 구단의 대처는 판이하게 달

랐다. 뮌헨은 2018년 한 팬이 응원 도구로 욱일기 문양을 사용하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전범기를 금지한다” “모욕적인 깃발을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명문 구단의 품격을 보여 준 것이다.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서경덕 교수는 지난달 유럽 4대 리그에 ‘욱일기는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의미의 전범기다’는 메시지가 담긴 자료를 발송하기도 했다. 욱일기는 동아시아 전쟁과 난징대학살, 위안부, 강제징용 등 일본의 침략과 수탈의 현장에서 펄럭였던 깃발이다. 독일은 반나치법을 제정해 나치당의 깃발 ‘하켄크로이츠’는 물론 스포츠 경기에서 나치를 떠올리게 하는 제스처까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도쿄올림픽에서 관중들에게 욱일기 사용을 오히려 권장하고 있으니 개탄스러운 일이다. 전범기가 스포츠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프리미어리그를 사랑하는 한국 팬들이 리버풀 구단에 실력만큼의 품격을 갖춰 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유재관 편집1부장 jkyou@

EPL의 욱일기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 고

월성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결정과 한빛원전



김은주 정읍시의회 한빛원전특위 위원장

지난해 영광군 소재 한빛원전의 충격적인 열 폭증 사고 등 연속적으로 들려왔던 원전 사고 소식에 정읍시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더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조사 결과 한빛원전 격납 건물에서 200개가 넘는 공극(구멍)이 발견되었다는 발표에 영광, 고창, 부안은 물론 정읍시민 또한 공포에 떨어야 했다. 특히 지난 5월 한빛 1호기 열 폭증 사고는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즉각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고 발생으로부터 무려 12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원안위의 지시로 긴급 수동 정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특별 사법경찰까지 나서서 조사한 결과, 한빛원자력본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원안위의 원전 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원전 사고

발생 후, 정읍시는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한빛원자력본부, 한수원, 원안위 등 어떠한 기관으로부터도 사고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언론에 대서특필된 이후에도 한수원이나 원안위는 정읍시에 전혀 소통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가 한빛원전으로부터의 거리가 30km를 넘게 떨어져 있어 비상 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지방 정부와 지방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제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빛원전으로부터 정읍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한빛원전에서 흑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핵 사고를 대비한 정읍시 자체의 행동 매뉴얼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한빛원전 특위와 함께 사고 후 원전 재가동 시 주민 동의권, 방재 예산 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정, 비상 계획 구역 확대, 한수원과 원안위에 대한 지역 주민의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2월 24일 원안위는 1982년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 결정을 내렸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설계 수명 30년이 끝났지만,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2022년까지 연장 가동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정작 가동 승인을 받았지만 2016년 설비 고장으로 두 번이나 정지했으며, 2017년에는 원자로 건물에 콘크리트 결함이 발견되어 정지된 채로 있었다. 이에 월성 주민들은 수명 연장 무효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7년 수명 연장에 대한 원안위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한수원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비를 교체하고 재가동하더라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 스스로 원안위에 영구 정지를 신청했다. 결국 월성 1호기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가동하는 것이 오히려 적자라는 것이 한수원과 원안위의 판단인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사고투성이 한빛원전을 지적해 두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빛원전 격납 건물은 내부 철판(CLP)의 기준 두께(5.4mm)에 미달되는 곳이 4505개소, 공극이 278개가 발견된 상태이다. 특히 한빛원전 3·4호기 두 개의 원전 격납 건물에서 발견된 공극만 해도 157cm의 동굴을 포함해서 245개나 된다. 현재 관련 기관 합동으로 공극

의 보수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보수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월성 1호기 사례와 같이 격납 건물을 보수한다고 해도 그 안전성을 100%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수천억 원을 들여 보수하기보다는 각각 85년(1호기), 95년(3호기), 96년(4호기)에 완공된 한빛원전을 조기에 영구 정지하는 것이 주민의 안전도 담보하고 비용도 절감하는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결정 과정에 정읍 시민을 포함한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의사 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한수원과 원안위의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의사 결정 방식으로는 주민의 안전보다는 원자력 업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핵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정읍시의회 한빛원전 특위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정읍시와 지역 시민단체, 그리고 전북도의회 특위 및 주변 지방 정부와 주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한빛원전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 고자 한다.